

01 교회소식

진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사랑으로 하나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전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공의의 빛을 발하는 가나안성전과 대성전을 이뤄 전 세계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03 신앙상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의 향은?

사람마다 마음이 얼마나 변화했느냐에 따라 그 기도의 향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의 향을 알아본다.

04 간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나이로비만 민성결교회 보고 목사와 악한 영에서 해방된 김순옥 권찰 간증.

만민뉴스

제565호 2013년 1월 2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초대교회처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불같은 기도와 말씀 무장, 주님 마음 이뤄가는 우리 교회



①말씀 공부를 하며 은혜의 간증으로 행복을 만끽하는 젊은이들 ②새 비전 새 마음으로 더욱 뜨거워진 다니엘철야 기도회 ③함께라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화요지역기도회 ④송이꽃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 공부할수록 하나님 사랑에 빠져든다는 교구 남조장들 ⑤가족이 모여도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 ⑥주일 낮 기관 모임에도 빠질 수 없는 영적 사모함, 성구 암송 테스트.

연초부터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뜨겁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근본의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의 종은 물론, 전 성도가 성결을 이루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신앙생활에 열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적인 어둠이 짙어가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공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출 가나안성전(우리 교회 여섯 번째 성전) 건축을 앞두고 주님 마음을 닮은 영적 장수를 무수히 배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다.

가장 큰 흐름은 '불같은 기도'

이다.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본받아 전 성도가 매일 밤 9시부터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본당을 비롯해 성전 곳곳을 가득 메운 채 진행되고 있는 이 기도회는 1월 1일 첫날부터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불같은 기도 인도로 성도들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통회자복의 역사, 성령충만함과 능력받는 축복의 역사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 교구나 선교회의

각종 기도회에서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다. 성도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한다.

또 하나의 흐름은 '말씀 무장'이다. 성구 암송과 성경 읽기는 물론, 팔복,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장 등 성결의 이정표가 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다시 듣고 무장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을 일궈가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비진리를 '성결 노트'

에 기록해 버릴 때까지 기도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감사 노트'를 작성해 성결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육체의 결여를 채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는 세계 만민을 깨우는 제단의 일원으로 앞으로 찾아올 다양한 계층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영적 변화의 흐름이 개인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회사 교구, 부서 단위로 확대돼 서로 힘을 북돋우며 행복하고 뜨겁게 이뤄가고 있다. 각종 모임이 부흥하고, 서로 영적 성장을 위해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사랑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를 닮았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온 집에 충성해 사랑받고 축복받은 간증이 넘치는 성도들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중추적 역할을 맡은 주의 종과 레위족(교회 상근직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영적 사명 감당을 위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정립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은혜 안에서 전 성도가 믿음의 반석을 넘어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으로 속히 나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2013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전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경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6)

다. 웅장한 규모와 천국의 영광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움, 건물에 도입된 첨단 기술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무엇보다 가나안성전과 대성전을 진정 빛나게 하는 것은 영적인 빛입니다.

빛을 발하는 성전이란 하나님 공의가 이 땅의 어둠을 밝히며 수많은 영혼을 모아들이고 변화시키는 참된 의미의 성전을 말합니다(시 37:6). 단지 건물만 크고 아름다운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빛을 발하여 거룩한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차서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 '의'와 '공의'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의'는 선악 간에 공평하게 상벌(賞罰)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을 일컫습니다. 이때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며, 법과 질서에 따라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선악 간에 공정하게 심판해 각 사람에게 상벌을 주시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정의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종교를 믿든 모두가 구원에 이른다며 '구원의 도'를 왜곡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이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법과 질서를 다시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므로 구원과 축복, 상급을 받는 교회를 보이심으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성전과 대성전은 영광스러운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들이 지어짐으로써 세계 열방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구원의 테두리 안에 거하고 참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2. 성전 건축이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되는가

1)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루는 자체로 하나님 공의가 빛을 발합니다

개척 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힘써왔습니다. 그러자 원수 마귀 사단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 일

부 교회들을 사주해 우리 교회를 정죄하고 훼파하려고 했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왔으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구제했고 선교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성전 건축의 비전을 잠시도 접은 적이 없었고, 끊임없이 간절한 기도를 쌓았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쌓은 선행과 믿음의 행함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단돈 7천 원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창대한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제단에 하나님께서는 심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며,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영광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요 13:32). 심은 대로 거두고 선이 반드시 승리하는 진리가 참임을 밝히 드러내시지요.

2) 성도들에게 맺힌 빛의 열매로 하나님 의와 공의가 빛을 발합니다

성도는 교회 머리인 주님의 지체입니다(엡 5:30). 성도가 빛을 발하면 교회, 곧 성전이 빛을 발하게 되지요. 가나안성전과 대성전이 이루어지면 많은 영혼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게 됩니다. 이때 이들을 진리의 토양에 잘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성전, 곧 어둔 세상을 밝히는 제단이란 명성에 걸맞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엡 5:9).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성도들에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처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 각 사람이 빛을 발하면 모여온 영혼들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됩니다. 즉 공의의 법대로 빛 가운데 거할 때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에 할례하고 충성하는 만큼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됨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임하는 만큼 어둠을 벗고 빛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에게 맺힌 이 빛의 열매로 인해 하나님 의와 공의가 빛

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내면에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면서 외적으로도 빛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육체의 결여(사람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하는 지적, 육체적 능력 등의 결여)를 벗고 덕을 갖추며 육적인 분야의 달란트와 실력을 갖추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이 땅에서 코로 숨 쉬는 동물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가나안성전과 대성전을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섭리가 이뤄질 것입니다. 즉 인종, 나이, 성별, 지식, 교양, 계층 등 모든 것을 초월해 다양한 영혼들이 몰려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홍수 당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많은 동물을 먹이고 돌본 것처럼, 우리도 몰려온 많은 영혼을 보살피며 말씀의 꼴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육 간에 역량을 갖추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계적으로 잘 무장된 말씀에 교양과 리더십, 외국어 등 다양한 능력까지 겸비하면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머리 된 일꾼들은 내외적으로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일꾼들의 마음에 빛의 열매가 맺힌 만큼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도 형통하게 인도받을 수 있고, 때와 시기, 행할 바를 정확히 주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빛의 열매를 신속히 맺고 성전의 실질적인 분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며, 말씀이 선포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이지요. 하지만 성전에 세상문화를 끌어들이므로 오늘날 그 의미가 퇴색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성전과 대성전이 이루어지면 수천 년 동안 퇴색해 버린 성전의 참 의미가 회복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고 더욱 밝게 빛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빛을 보며 가슴 가득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망을 안겨 줄 빛을 주셨습니다. 바로 만민의 이름으로 지어질 가나안성전과 대성전이 발할 빛입니다. 이 빛은 세상의 짙은 어둠을 밝혀 길을 잃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며, 그들의 가슴에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새겨 줄 것입니다. 과연 가나안성전과 대성전이 어떻게 빛을 발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일까요?

1.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스런 열매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시고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성결을 이룬 자녀들이 세운 성전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목자의 권능을 더하시며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 오셨지요. 이제 만민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며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성전과 대성전은 뛰어난 건물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성전입니다.



- 교회 주소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 일출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

Q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향은 어떻게 다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의 향은 어떤 것일까요?

A 요한계시록 8:3~4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우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곧 성도들의 기도는 천사에 의해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기도의 향의 굵기와 농도

각 사람의 기도의 향을 받는 향로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기도의 향을 금 그릇에 받습니다. 이 그릇은 바닥이 넓고 속이 깊지 않은 모양이며, 크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닦았느냐, 얼마나 믿음의 분량이 크냐에 따라 기도의 향의 굵기와 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폭포수처럼 굵은 향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가

느다랗게 올라갑니다. 같은 시간 기도한다 해도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응답받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온전한 믿음의 기도, 중심에서 우리나라 사랑의 기도일 때는 향이 굵고 진해 그만큼 채워지는 속도가 빨라 응답도 신속합니다. 반면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그만큼 향이 가늘고 열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기도의 향을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 각 사람의 기도의 향은 마음이 변화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선한 마음의 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 1.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돌아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다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금의 내 모습이 부끄러울 따름은 내 마음에 성결에 대한 뜨거움이 부족함이었나이다. 후회하며 돌아보나이다. 죄송하나이다. 부끄럽나이다.”

ex 2. “내 악이 어디까지인지... 내 생각의 악함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원하나이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내어주었으니 내 의지가 아니라 아니라 계속 되새겨도 결국은 내가 그 생각을 그 입술을 내고 있나이다. 살려주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소서.”

ex 3.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넘침은 내 사랑의 목자께서 어떤 사랑의 공간을 펼치시는가를 증거하나이다.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좋

고, 영혼들의 기쁨이 되는 이 일이 너무 행복하나이다. 내 목자님의 눈물의 대가를 잊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겠나이다. 내 목자님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ex 4. “아버지 이제야 마음 깊이 느껴져요. 목자님의 기다림의 눈물이 무엇인지요. 그 따뜻한 미소 뒤에 기다리심의 세월과 바라보심이 있었다는 것들요. 내가 무엇인데 아버지는 목자님을 만나서 나를 변화되게 하시고, 목자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셨는지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름다운 그곳을 바라보며 끝없이 씩 웃고 달려갈게요.”

ex 5.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니 셀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드린 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요.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내게... 할 수 있다고 힘을 주신 목자님의 사랑의 말씀이 귓가에 맴도나이다. 한없이 흐르는 이 눈물은 목자님에 대한 감사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주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의 향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에서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한 중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는 정금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이지요. 성도(聖徒)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좇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라면 그 기도는 마음의 향이 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랑의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영적인 사랑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더 간절히 나옵니다. 즉 자신의 가족, 일용할 양식, 건강

보다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와 영혼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별로 기도할 내용도 없고 그다지 간절하지도 않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될 수 없습니다. 잠냄 속에 기도하거나 사람 보기에만 열심히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겉으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것이 습관적인 것이라면 진한 향이 될 수 없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예 향으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와야만 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굵고 진한 사랑의 향이 되도록 신속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쌓인 아름다운 향이 응답과 축복으로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3.1.20~1.26)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12-16
- 마음발을 개간하자 6-7
- 심고 거두는 법칙 1-3
- 믿음의 분량 1-4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1-3

GCN TV설교

- 팔복 5-9(이수진 목사)
- 더 신속히 변화되는 방법 1-2(이수진 목사)
- 게으름(김수정 목사)
- 악, 악의모양 / 신부단장(이희선 목사)
- 'GCN TV특강' 십자가의 도(정구영 목사)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플레이즈[2] 9-13
- 찬양과 경배 (3), CCM갤러리
- 해외성회 시리즈
 - 인도연향대성회 4
 - 페루연향성회 - 종합편



참된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스탠리 보고 목사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교역자회장)

1978년 3월,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종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방향의 나날을 보냈고, 가족의 간절한 기도로 1998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 주님께 참된 헌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각종 설교를 들으며 신앙서적들을 읽었지만 그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지요.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는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사모하며 금식과 기도로 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재록 목사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

성경공부와 찬양예배를 인도하며 병원 전도를 다니던 2001년 6월, 목사님 한 분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개척 후 그분은 헌금이 기대보다 적다는 이유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남은 성도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라고 간



구했습니다. 그때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사람을 보여 주겠다. 그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모리스 세물로 박사, 본케 목사, 베니힌 목사...?’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떠올리며 생각해 봤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이재록 목사 초청 2001 케냐 연합대성회’ 광고를 보았는데, 이미 성회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쿵광했습니다.

“어머니,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권능이 대

단한 아시아계 목사님이라고 하 더구나.”

『십자가의 도』 책자를 읽으며 만민 사역에 신뢰를 갖고

2001년 8월, 헐링검에 위치한 아프리카만민선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정명호 목사님은 겸손하시고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도울 주의 종을 요청했는데, 정 목사님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 교회를 직접 맡을 것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신뢰할만한 주의 종을 만난 사실에 뭇 듯이 기뻐고, 정 목사님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읽으며 만민 사역에 신뢰를 갖게 됐습니

다. 얼마 후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만민성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담긴 영적 의미를 배우며 하나님 마음과 뜻이 깨우쳐지니 제 영혼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사역에 자신감도 생겼지요. 이렇게 배운 성결의 오종 복음으로 설교하니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 뜻 가운데 2003년 4월부터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에서 사역하게 됐고, 제가 맡고 있던 교회는 남동생이 대신 사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참된 주의 종의 길로

저는 정명호 목사님 기도로 어릴 적부터 고통받던 천식을 깨끗

이 치료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서울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해 이재록 목사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이 된 무안단물터(출 15:25)에서 무안단물을 눈에 바른 뒤 시력이 회복돼 안경도 벗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현재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교역자회장으로 정명호 목사님을 도와 각종 예배나 목회자 세미나와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 시 통역자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결 복음을 통해 목회자들이 변화하고, 손수건 집회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보며 참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민 사역을 통해 전 세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깨우치며, 그 섭리를 이뤄가시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프리카에 성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는 정명호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만민의 주의 종으로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밤마다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났어요”

김순옥 권찰 (3세대 25교구)

저는 12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습니다. 그 후 이 일은 제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지요. 그런데 2010년 4월, 심한 관절염으로 절에 가지 못하자 밤마다 시커먼 옷을 입은 귀신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고통과 불안에 시달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으며 얼굴은 새까맣게 변해갔지요. 집을 옮기면 귀신이 안 나타날까 싶어 이사도 해봤지만 오히려 더 많은 귀신이 와서 저를 못살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면 귀신이 떨어지려나?’ 하는 생각에 가까운 교회

에 나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마침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는 조카 조정순 성도의 전도로 2011년 11월에 등록했지요. 심방을 통해 영주, 불교 책자, 절복 등 불교에 관한 모든 물건을 모두 버렸습니 다. 그리고 헌관문에 우리 교회 교패를 붙여 놓았지요.

그 후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바로 저를 괴롭히던 귀신 셋이 저희 집에 못 들어오고 문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날부터 각종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지난날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차츰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으며,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하게 됐지요. 또한 당회장님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기도로 30여 년 된 관절염이 치유됐고, 이를 본 남편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령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기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갈매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